입시CUBE

01 2027학년도 수시

수시 여섯 장, 전형은 네 갈래

교과·학종·논술·실기가 보는 것

-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숫자부터 2

02 무엇이 다른가 3

03 그래서 무엇을 4

04 점검표 5

05 자주 묻는 것 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2027 수시 요강 **6,482줄을 집계했습니다** — 학종 30,468명 · 교과 26,958명 · 논술 9,314명
- **수능최저를 거는 비율이 갈래마다 다릅니다** — 교과 69%, 논술 73%, 그런데 학종은 15%
- 경쟁률은 갈래를 건너 비교하면 안 되는 숫자 — 교과 9:1과 논술 36:1이 다른 뜻인 까닭
- 여섯 장을 나누는 차례 넷 · **여섯 장을 다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**

01 · 숫자부터

여섯 장을 네 갈래에 나눠 씁니다

> **「수시 여섯 장, 어디에 쓰죠?」**
> 이 질문에 답하려면 **먼저 무엇이 있는지**를 아셔야 합니다. 수시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**네 갈래**이고, 갈래마다 **보는 것이 다릅니다.** 성적이 같아도 어느 갈래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.

2027학년도 수시 요강 **6,482줄**(41개 대학)을 갈래로 나눠 세어 보았습니다.

갈래	모집 인원	수능최저	경쟁률 중앙	무엇을 보나
학생부종합	**30,468**명	15%	12.4:1	서류 전체를 **읽습니다**
학생부교과	**26,958**명	69%	9:1	내신을 **계산합니다**
논술	**9,314**명	73%	36:1	그날 쓴 답안을 **봅니다**
실기	—	—	—	실기 능력

표에서 **세 가지가 바로 읽힙니다.**

하나 — 학종과 교과가 대부분입니다. 둘을 합치면 57,426명입니다. 논술은 9,314명으로 훨씬 작습니다. **수시의 중심은 학교생활기록부**입니다.

둘 — 최저를 거는 비율이 갈래마다 크게 다릅니다. 교과는 69%, 논술은 73%가 수능최저를 겁니다. 그런데 **학종은 15%뿐이어서, 수능이 약한 학생에게 학종이 열려 있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.**

셋 — 경쟁률은 갈래를 건너 비교하면 안 됩니다. 논술 36:1 과 교과 9:1 은 **다른 뜻**입니다. 까닭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41개 대학 6,482줄을 저희가 집계.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. 모집 인원은 요강 기준입니다.

02 · 무엇이 다른가

읽는 전형과 계산하는 전형

네 갈래는 **「같은 학생을 다르게 보는 네 개의 창」**입니다. 무엇을 보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.

학생부교과 — 계산합니다

내신 등급을 **정해진 식에 넣어 점수로 바꿉니다.** 어느 과목을 몇 % 반영하는지가 요강에 적혀 있고, 그대로 계산합니다. **사람의 판단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.**

그래서 **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가장 쉬운 전형**입니다. 대신 **내신 말고는 보탤 것이 없습니다.** 활동이 아무리 좋아도 계산식에 자리가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.

학생부종합 — 읽습니다

생활기록부를 **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.** 등급도 보지만 **어떤 과목을 골랐는지, 세특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, 3년 동안 무엇이 이어졌는지**를 함께 봅니다.

그래서 **등급이 같아도 결과가 갈립니다.** 이것을 「불공정」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「맥락을 본다」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. 어느 쪽이든 **준비하는 방법이 교과와 완전히 다릅니다.**

논술 — 그날 쓴 것을 봅니다

내신도 반영하지만 **비중이 작고, 논술 점수가 사실상 가릅니다.** 요강에 **「논술100」**이라고 적힌 곳도 476줄입니다 — 내신을 아예 안 보는 자리입니다.

내신이 약한 학생에게 열려 있는 거의 유일한 수시 문입니다. 대신 경쟁률이 높고, **73%가 수능최저를 겁니다.**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. 전형 운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을 확인하십시오.

03 · 그래서 무엇을

여섯 장을 나누는 차례

여섯 장을 어떻게 나눌지는 **「내가 가진 것」에서 시작**합니다. 가지지 않은 것에 장을 쓰면 그 장은 버리는 것입니다.

차례	물을 것	답에 따라
1	**내신**이 목표 대학 선에 드는가	들면 교과가 가장 확실합니다
2	**생활기록부**에 이어진 이야기가 있는가	있으면 학종이 열립니다
3	**수능최저**를 맞출 수 있는가	맞추면 교과·논술의 문이 넓어집니다
4	**글로 푸는 것**이 강한가	강하면 논술을 섞습니다

3번이 판을 크게 바꿉니다. 교과의 69%, 논술의 73%가 최저를 겁니다. **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자리가 크게 늘고, 못 맞추면 그 자리들이 통째로 사라집니다.**

거꾸로 **수능이 약하다면 학종 쪽으로 무게를 옮기시는 편**이 낫습니다. 학종은 15%만 최저를 겁니다.

흔한 어긋남 셋

여섯 장을 한 갈래에 몰아 쓰는 것 — 그 갈래가 안 맞으면 여섯 장이 함께 무너집니다. **안 되는 갈래에 예의상 한 장** — 버리는 장입니다. 차라리 되는 갈래를 하나 더 쓰십시오. **갈래를 안 정하고 학교 이름부터 고르는 것** 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.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.

04 · 점검표

여섯 장을 넣기 전에

인쇄해서 원서 쓰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.

갈래에 대해

- [ ] 여섯 장이 **어느 갈래** 에 몇 장인지 세어 보았는가
- [ ] 한 갈래에 **다 몰려 있지** 않은가
- [ ] 안 맞는 갈래에 **예의상 넣은 장** 이 없는가
- [ ] 각 장의 **수능최저** 를 확인했는가
- [ ] 최저를 **못 맞췄을 때** 남는 장이 몇인지 세어 보았는가

일정에 대해

- [ ] **대학별고사 날짜** 가 서로 겹치지 않는가
- [ ] 수능 **전에 치르는 고사** 가 몇 개인지 아는가
- [ ] 고사장까지 **갈 수 있는 거리** 인가

마지막 셋을 원서 쓴 뒤에 확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**그때는 못 바꿉니다.** 넣기 전에 달력에 찍어 보십시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**여섯 장을 다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** 맞는 자리가 넷이면 넷만 쓰시는 편이, 억지로 여섯을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. 남은 두 장은 **정시로 가는 힘**으로 남습니다. 상담을 파는 쪽은 여섯 장을 다 채워 드리는 것이 일처럼 보이지만, **버리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.**

05 · 자주 묻는 것

수시를 앞둔 학부모님이 하시는 질문

Q. 학종은 준비할 방법이 없다던데요?

「비법이 없다」와 「준비할 것이 없다」는 다릅니다.

학종에는 점수표가 없습니다. 그래서 **「이렇게 하면 붙는다」는 말은 지어낸 것**입니다. 그런 말을 파는 곳은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.

다만 학종이 읽는 것은 **생활기록부**이고, 그건 **학교 안에서 만들어집니다.** 수업에서 무엇을 했는지, 세특에 무엇이 적히는지, 3년이 이어지는지. **이건 준비가 아니라 생활**입니다.

그래서 학종 준비의 대부분은 **고1·고2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.** 고3에 시작하시면 늦고, **고1에 신경 쓰시면 따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.**

Q. 내신이 안 좋으면 수시는 포기해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다만 **갈래를 좁히셔야** 합니다.

내신을 계산하는 교과 전형은 어렵습니다. 그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**논술은 내신 비중이 작고**, 요강에 「논술100」이라 적힌 자리가 476줄입니다 — **내신을 아예 안 보는 자리**입니다.

대신 조건이 붙습니다. 논술은 경쟁률이 높고 **73%가 수능최저를 겁니다.** 그러니 **「내신이 약하다」의 다음 질문은 「수능은 어떤가」**입니다. 수능이 되면 논술이 열리고, 수능도 어려우면 학종 쪽을 보셔야 합니다.

포기할 일이 아니라 문을 갈아타는 일입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수시는 여섯 번의 기회가 아니라 **네 갈래 가운데 내 것을 고르는 일**입니다. 갈래를 먼저 정하면, 학교는 그다음에 저절로 좁혀집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. 개별 학과의 합격선·경쟁률은 싣지 않습니다 — 전형 구조만 다룹니다. 요강은 정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에는 각 대학 입학처의 최종 요강을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